

기후정의가 이슈가 된 시대에 본회퍼의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갖는 의미*

강안일 (서울신학대학교, 숭실대 강사)

I. 서론

II.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III. 본회퍼의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의 의미

1. 본회퍼에게 ‘기도’의 의미
2. 본회퍼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의 의미

I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60.03>

* 이 논문은 2024년 5월 25일 한국기독교윤리학회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공동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게재를 위해 수정하였음.

• ABSTRACT •

The Meaning of Dietrich Bonhoeffer's "Prayer and in doing Justice" in an Era Where Climate Justice Has Become an Issue

KANG, AN IL (Dr.theol.)(Lecturer Christian Ethics,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relevance and contextual application of Bonhoeffer's ethics in light of the contemporary emergence of the *climate justice* issue, with a specific focus on the concept of "Prayer and in doing Justice" as articulated by Bonhoeffer. The study seek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this concept for the Korean Church as it navigates the challenges of the climate justice era from two distinct perspectives.

Firstly, under the recognition that Prayer and in doing Justice are deeply interconnected,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Church should move beyond self-interest or self-serving objectives and confront systems of injustice and inequality with proactive action. It asserts that the Church must overcome apathy or silence in response to the suffering and inequities of the world by raising its voice and engaging in action to promote climate justice. Secondly, the paper highlights the necessity of integr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ssue of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with human rights, particularly by prioritizing the rights of marginalized groups, vulnerable populations, and future generations. It argues that this perspective provides critical insight into addressing the climate crisis and fostering solutions to these complex challenges.

Key words: Dietrich Bonhoeffer, Climate Justice, Prayer and in doing Justice, Human Rights, Korean Church

I. 서론

본회퍼 윤리의 관심은 언제나 현재성과 현장성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강조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 그리고 여기서”(unter uns heute und hier)는 그가 처한 역사-정치적 상황에서 언제나 ‘결단과 책임적인 만남’으로 안내했기 때문이다.¹⁾ 본회퍼는 우선 『성도의 교제』에서 윤리적 운동은 언제나 구체적인 운동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각 사람이 타자와 만나는 구체적인 순간에 인격이 되며, 윤리적 영역 안으로 놓이기 때문이다.²⁾ 『행위와 존재』에서 본회퍼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 드러난 사고 흐름을 계속 이어가며, 각 개인이 경험하는 현실은 언제나 타자라는 우발적인 현재적인 요청 속에서 경험되기에, 타자의 요청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만 각 사람은 현실 속에서 실존할 수 있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그가 강조하는 ‘윤리의 의미’이며, ‘현재의 의미’다.³⁾ 그리고 본회퍼는 1932년 7월 체코슬로바키아 키에르노호르스케 쿠펠레에서 개최된 세계 연맹 국제 청년 평화 회의에서 발표한 “세계연맹사업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위해”라는 논문에서 교회는 교회가 처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인 판단과 결단을 해야 함을 그가 가진 하나님 이해를 통해 강조한다. 본회퍼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원칙적인 원리에 따라 집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다.⁴⁾ 여기서

1) Dietrich Bonhoeffer, *Ethik*, ed. Ilse Tödt, Heinz Eduard Tödt, Ernst Feil and Clifford Gre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87.

2) Dietrich Bonhoeffer,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ed. Joachim von Soost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29.

3) Dietrich Bonhoeffer, *Akt und Sein. Transzendentalphilosophie und Ontologie in der systematischen Theologie*, ed. Hans-Richard Reut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81.

4) Dietrich Bonhoeffer, *Ökumene, Universität, Pfarramt 1931-1932*, ed. Eberhard

강조하는 ‘오늘의 하나님’이란 “현재적 상황에 매우 깊이 연결하시며, 현재적인 상황을 스스로 취하신다”는 의미다.⁵⁾ 이런 이해는 『나를 따르라』에서도 볼 수 있다. 본회퍼는 서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노동자, 상인, 농부, 군인들에게 오늘(heute)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⁶⁾ 이것은 『나를 따르라』에서 제자도에 대한 어떤 추상화된 원리를 제시하는 데 있다기보다는⁷⁾ 그가 처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를 따른다는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회퍼가 처한 1930년대의 상황을 고려하면서, 『나를 따르라』에 대한 정치적 읽기나 여러 가지 공적인 읽기가 가능한 이유다.⁸⁾ 『윤리학』에서도 이런 생각들은 명확한 문장들을 통해 강조된다. 본회퍼는 “형성으로서의 윤리”라는 단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그리고 여기서”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⁹⁾ 그리스도가 현실과 갖는 현재성과 현장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본회퍼가 『저항과 복종』에서 던지는 질문에서도 계속된다. 그의 판단에 따라 비종교적 시대로 접어든 시기에 그리스도교가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를 위해 실제로 누구인지를 묻는 것은 중요했다.¹⁰⁾ 정리하면 본회퍼에게 있어 모든

Amelung, Christoph Strohm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332; Christiane Tietz -Steiding, “Gott ist uns immer gerade heute Gott,” in: *Bonhoeffer-Rundbrief* Nr. 70/2003, 8-21.

5) 강안일, 『본회퍼에게 신앙을 배우다』 (서울: 토비아, 2018), 176.

6)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ed. Martin Kuske and Ilse Töd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23.

7) 한스 요하임 크라우스는 『나를 따르라』에서 제자도가 어떤 삶의 프로그램이나 목적이거나 이상이 아니라 예수의 뒤를 따르는 것뿐이라는 생각에 근거하여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윤리의 모든 규범과 원리들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Hans-Joachim Kraus, *Theologische Religionskritik* (Neukirchen -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103;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46.

8) 김현수, “디트리히 본회퍼의 『나를 따르라』에 대한 하나의 공적인 읽기,” 『신학사상』 160(2013), 199-236.

9) Dietrich Bonhoeffer, *Ethik*, 87.

윤리적 결단들은 선물로 받은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취한 것처럼 적절한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기에 현실에 대한 상황을 취하는 성격 때문에 그의 윤리적 행위는 제한된 행위이겠지만, 그러나 현실성에 깊이 개입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을 따라 현실에 전체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¹⁾

간략하게 살펴본 본회퍼 윤리의 이런 현재성과 현장성 때문에,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토론의 주제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결단과 만남의 영역”인¹²⁾ “우리 가운데 지금 그리고 여기서”라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본회퍼의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¹³⁾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에 따라 본회퍼가 말하는 “기도와 정의를 행

10)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ed. Christian Gremmels, Eberhard Bethge and Renate Bethge in Zusammenarbeit mit Ilse Töd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402.

11) Friedrich Johannsen, “Was heißt Leben schützen?” In *Dietrich Bonhoeffers Ethik. Ein Arbeitsbuch für Schule, Gemeinde und Studium*, ed. Reinhold Mokrosch, Friedrich Johannsen and Christian Gremmels (Gütersloh: Chr. Kaiser, 2003), 62-63.

12) Dietrich Bonhoeffer, *Ethik*, 87.

13) 학자들은 본회퍼의 신학과 윤리가 현재 기후위기 상황과 갖는 관련성을 연구하고 있다. Steven C. van den Heuvel, *Bonhoeffer's Christocentric Theology and Fundamental Debates in Environmental Ethics*,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7); Dianne P. Rayson, *Bonhoeffer and Climate Change. Theology and Ethics for the Anthropocene* (London: Fortress Academic, 2021); Dianne P. Rayson, “Bonhoeffer’s Christology in a Warming World: Eco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Feminist Theology,” *Sea Changes: The Journal of Women Scholars of Religion and Theology* 7, (University of Queensland 2016), 1-28; Dianne P. Rayson, “Earthly Christianity: Bonhoeffer’s contribution to ecotheology and ecoethics,” *The Bonhoeffer Legacy: An International Journal* 6/1(2019); Benjamin J. Burkholder, “Christological Foundations for an Ecological Ethic: Learning from Bonhoeffer,”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6, Cambridge 2013, 338-356; Larry L. Rasmussen, “Bonhoeffer: Ecological Theologian,” in *Bonhoeffer and Interpretive Theory: Essays on Methods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Bonhoeffer Interpretations (IBI)* 6, Edited by Peter Frick (Frankfurt am Main: Lit Verlag, 2014), 251-268.

하는 것”이 주는 의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기후정의’란 무엇인가?

오늘날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로 논의할 수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2024년 세계경제포럼(WEF) 전에 전 세계 전문가 1490명에게 지구적 위험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하게 한 결과, 1위로 뽑힌 ‘기후위기’ 문제로 출발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현재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위기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룰 수는 없고,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남미 등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모여 작성한 “발리 기후정의 원칙”을 바탕으로,¹⁴⁾ 2015년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세계 기후정책에서 핵심적인 원칙으로 간주한 “기후정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한다.¹⁵⁾

한국은 기후정의를 기후위기 문제가 초래하는 세대 간의 부정의와 분배적 불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¹⁶⁾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12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

14) 한재각, 『기후정의』 (대구: 한티재, 2021), 42-43.

15) 이 시기에 기후위기의 새로운 담론은 “탄소중립과 기후정의”가 중심이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목표고, 기후정의를 기후변화 저감과 적응 대응 과정에서 불평등을 교정하려는 원칙과 철학의 개념이다.” 박시원,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환경법연구』 43(2021), 50.

16) D. Schlosberg and L. B. Collins, “From environmental to climate justice: climate change and the discourse of environmental justic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5(3), 2014, 359-374.

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¹⁷⁾ 이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계층과 세대 간의 책임과 의무를 정의롭게 분배하고,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위해서도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기후정의 개념에는 한국에서 시행된 법제정이기에 기후정의를 말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국가 간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한계점이다.

그러기에 기후정의를 다루는 학자들의 논의가 다양하게 분류된다고 하더라도,¹⁹⁾ 세계-개별적 국가, 그리고 세대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는 분명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와 세계 분배적 정의는 기후위기의 책임을 어떻게 책임 있게 분배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전 지구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기후위기에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기후 위기에 적은 영향을 끼친 저개발 국가들을 공정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⁰⁾ 다시 말하면 기후위기의 영향이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으로 탄소 배출이 적은 저개발 국가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에 이런 불공정한 상황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²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적인 차원에서 보면

17)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2024.4.10.) <https://www.me.go.kr/home/web/main.do>.

18) 최명애, “인간 너머의 기후정의,” 『대한지리학회지』 58(2023), 452-468.

19) 한상운 외 학자들은 기후정의를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종적 정의”로 분류한다. 한상운 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 (세종: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2019), 13; 직접적으로 기후정의에서 말하는 정의의 구분은 아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 5권에서 정의를 “탁월성의 부분으로서의 정의, 분배적 정의, 시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정치적 정의, 자연적 정의와 법적 정의”로 구분한다.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이창우 외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재이북스, 2007), 165-186.

20) 박시원,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39-81.

21)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산업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영향들 즉, 한파, 홍수, 가뭄, 폭염 등이 상대적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불공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세대 분배적 정의는 기후위기가 현세대가 끼친 영향인데, 아무런 책임이 없는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기후적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는 불공정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다.²³⁾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할 때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라와 개인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는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⁴⁾ 여기서 정의는 일반적으로 불공정한 상황이 보상될 때 성취된 정의로운 상태와 함께 옳고, 공평하고, 적절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²⁵⁾ 가난한 나라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야기한 사람

발생 가능한 충격과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하게 된 용어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1970년대부터 존재해 온 개념으로 노동자의 고용 안전 및 보건에 중점을 둔 노동 운동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기후위기 문제와 결합하여 노동 의제에서 기후·환경 의제로 확장하였으며, 유엔 환경 계획,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문서에서 정의로운 전환개념이 반영되었다.” 김은화, “정의로운 전환,” 『국토』 496(2023), 43-45; 주병기, 『정의로운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서울: 울곡, 2022).

- 22) 박시원,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50-51.
- 23) 빌프리트 헤를레는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과 두 가지 우선적인 규칙을 설명하면서, “모든 분배 규칙에서 차세대의 삶의 조건들을 고려”해야 하고, “미래가 현재의 규칙이나 분배를 통해 위협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공정한 비용절감”이라는 개념이 아직도 “환경윤리의 범주만이 아니라 미래와 관련된 모든 결단상황에서 고려되어 할 책임성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윤리학의 필수불가결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Wilfried Härle, *Ethik*, 김형민 역, 『선의 매혹적인 힘.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이론과 실제』 (성남: 북코리아, 2016), 442.
- 24) 트라우고트 예니헨은 1848년부터 1955년까지 “사회적 개신교와 공동 결정의 발전”을 연구하면서, 공동결정(Mitbestimmung)은 사회·정치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설계할 때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비록 경제적인 입장에서 주로 진행되는 논의이지만, 전쟁 이후 독일사회를 새롭게 재건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강조한다는 것은 기후위기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현 시기를 기후정의를 강조함으로 새롭게 하려는 것과 비슷하다. 특별히 기후정의에서 중요한 절차적 정의를 이야기 할 때 그가 말한 “공동결정” 개념은 중요한 대화 개념이 될 수 있다. Traugott Jähnichen,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1848-1955)* (Bochum: SWI-Verlag, 1993), 332-401.

들로부터 공정하게 지원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를 통해 지구촌에 살면서 얻은 이익과 짐을 정의로운 전환으로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에 모두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의 취약계층과 내일의 세대들의 권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것이 기후정의의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기후정의에 관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인권 기준과 결합시켜야 하며, 기후변화로 최악의 영향을 받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사람이 먼저’라는 공약을 세워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자세히 전달하여 향후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에 그들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리 로빈슨의 목소리는 경청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²⁶⁾

이처럼 우리 시대가 당면한 기후위기 속에서, 그리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전략으로 기후정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 본회퍼의 생각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특별히 기후정의를 통해 정의와 평등을 외치는 현시점에서 본회퍼가 말하는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질문들은 본회퍼의 신학과 윤리가 갖는 현재성과 현장성을 위해서도 시의적절하고,²⁷⁾ 신학과 윤리가 갖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25) 정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Traugott Jähnichen, “Gerechtigkeit,” In *Evangelische Ethik Kompakt. Basiswissen in Grundbegriffen*, ed. Reiner Anselm and Ulrich H. J. Körtn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63-71.

26) Mary Robinson, *Climate Justice*, 서민아 역, 『기후정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 회복력 그리고 투쟁』 (서울: 펠로소픽, 2020), 26-27.

27) 2024년 1월 14일~18일까지 호주(시드니)에서 열린 14회 국제본회퍼학회(International Bonhoeffer Congress)는 “위기와 희망: 오늘을 위한 본회퍼 읽기”(Crisis and Hope: Reading Bonhoeffer for Today)라는 주제 속에, 다양한 주제들이 제기 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생태 위기 속에서 우리 니센(Ulrik Nissen)은 “희망에 응답하기: 기후 위기 속에서 본회퍼의 윤리를 위한 도전”(Responding to Hope: A challenge for Bonhoeffer’s Ethics in Times of Climate Crisis)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https://bonhoeffersociety.org/2024/02/26/xiv-international-bonhoeffer-con>

수 있다.²⁸⁾

III. 본회퍼의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의 의미

본회퍼의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에릭 메택시스가 “작은 걸작”²⁹⁾이라고 평가한 1944년 5월, 그가 베트게 부부에게 보낸 “디트리히 빌헬름 뤼디거 베트게의 세례 일에 대한 단상”이라는 편지 후반부에 등장한다. 본회퍼는 편지 끝부분에서 세례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개념(화해, 속죄, 거듭남, 성령, 원수사랑, 십자가, 부활)들에 관해 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무엇이고, 예수의 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질문한다. 그러면서 본회퍼는 우리가 그동안 이런 질문들에 대해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Schuld)이라고 말한다.³⁰⁾ 이렇게 당시 교회가 온전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침묵해야 했으며, 더 구체적으로 인간과 세계를 위해 화해하고 구원하는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없었고, 옛 말씀들은 힘을 잃고, 침묵하게 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은 교회가 오직 자기 목적과 자기 보존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한다.³¹⁾ 이처럼 본회퍼가 비판하는 당시 교회의 자기 목적과 자기보존에 대해서

gress/

28) 예를 들면, 이동찬은 대학채플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는 대학채플이 ‘기후위기와 기후정의’라는 시의적절하고 긴급한 사회문제를 다루면서도 ‘복음전도의 맥락을 놓치지 않는 효과적인 대학채플 커리큘럼 모델을 모색할 것이다.” 이동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채플의 실천 프로그램 제안,” 『대학과 선교』 57(2023), 67-95.

29) Eric Metaxas, *Dietrich Bonhoeffer*, 김순현 역, 『디트리히 본회퍼』 (서울: 포이에마, 2011), 669.

30)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435.

31) Ibid., 435. 여기서 말하고 있고, 계속 사용하는 “자기 목적과 자기 보존”이라는 단어는 교회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변호에만 신경 쓰고, 타인을 위한 용기를 갖지 않는 당시 시대적인 교회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558.

는 구체적으로 1944년 8월에 작성한 “연구를 위한 초안”이라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교백교회는 교회가 하는 여러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인격적인 그리스도 신앙은 부족하고, 예수는 시선에서 사라졌다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적으로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을 잃었고, 현재 시민들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오직 교회의 자기 방어에만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니, 결국 타인을 위한 어떤 시도나 모험이 없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³²⁾ 그래서 본회퍼는 이렇게 당시 교회가 타인을 위한 시도나 모험 없이 자기 목적과 자기 방어에 집중하는 것을 벗어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기도와 인간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³³⁾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을 통해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생각과 말, 그리고 조직들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사실 옛 수도원 전통의 “기도와 노동”(ora et labora)이라는 형태와 연결된다.³⁴⁾ ‘기도와 노동’은 수도원 운동의 중요한 특징이었고,³⁵⁾ 본회퍼에게도 늘 중요한 주제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는 1935년 1월 그의 형, 칼 프리드리히 본회퍼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부흥은 확실하게 새로운 수도원 방식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단지 예수의 제자도 안에서 산상수훈에 따라 삶의 비타협성을 공동으로 가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야 할 시간이라고 믿는

32)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557-558.

33) Ibid., *Widerstand und Ergebung*, 435.

34) Rainer Mayer, “Beten und Tun des Gerechten,” in *Dietrich Bonhoeffer aktuell. Biografie, Theologie, Spiritualität*, ed. Rainer Mayer and Peter Zimmerling (Gießen: Brunnen Verlag, 2001), 197.

35) Stefan Wick, *Sucht den Herrn und ihr werdet leben! Gottsuche in Dietrich Bonhoeffers Schrift “Gemeinsames Leben und der Benediktsregel. Eine vergleichende Studie* (Münster: Litverlag, 2006), 111.

다.”³⁶⁾ 이런 수도원적 관심이 여기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본회퍼에게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라이너 마이어가 정당하게 평가한 것처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³⁷⁾ 그렇지만 이해를 위해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각각 설명하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 기후정의 시대에 지금의 교회가 현실과 어떤 연결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1. 본회퍼에게 ‘기도’의 의미

라이너 마이어는 본회퍼의 생애에서 기도가 갖는 의미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것을 통해 기도는 그의 유년 시절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중요한 행동과 결단의 요소였다는 것을 밝힌다.³⁸⁾ 알브레히트 쉐헤어는 기도가 본회퍼의 전체 생애에서 특별히 그가 성서와 산상수훈을 발견한 이후에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³⁹⁾ 그리고 어떤 학자들보다도 본회퍼의 기도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알베르트 알텐네어는 기도의 교사로서의 본회퍼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다. “기도자로서 본회퍼”를 그의 생애를 중심으로 다룬 첫 번째 장을 시작으로, 그다음에서 “하나님을 기도의 토대”로 연구한 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인

36) Dietrich Bonhoeffer, *London 1933-1935*, ed. Hans Goedeking, Martin Heimbucher and Hans-Walter Schleich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273; 본회퍼가 강조하는 새로운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는 강안일, 『본회퍼에게 신앙을 배우다』, 99-142.

37) Rainer Mayer, “Beten und Tun des Gerechten,” 198. 마이어는 본회퍼의 삶과 업적에서 기도와 행함의 성공적인 연결을 만난다고 주장한다.

38) Rainer Mayer, “Beten und Tun des Gerechten,” 201-210.

39) Albrecht Schönherr, “Unser Christen wird heute nur in zweierlei bestehen: Im Beten und im Tun des Gerechten unter den Menschen,” Versuch einer Auslegung, in *Horizont und Mitte. Aufsätze, Vorträge und Reden*, ed. Albrecht Schönher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1), 104-118.

간, “세계 속에서 기도,” “기도훈련의 안내자로서 성서와 훈육”을 차례로 다룬다. 이를 통해 알텐네어는 기도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자유와 연결하며, 자유의 표현으로서 기도를 자기중심적인 나(Ich)로부터 기도자를 해방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국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에 참여하게 하며,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의 최종적인 표현인 예수의 삶에 즉,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적이며 중보적인 기도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⁴⁰⁾ 이렇게 탁월하게 다룬 알텐네어의 연구 외에도 본회퍼의 기도 주제는 그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⁴¹⁾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연구결과들을 여기에서 요약하며 논의하는 것은 지면의 한계뿐만 아니라 지루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런 한계를 인정하며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본회퍼가 강조하는 기도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몇몇 부분만을 살펴보면서, 기후정의시대에 주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마태복음 6장을 다루면서 모든 올바른 기도는 “중재된 기도”라고 주장한다.⁴²⁾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에, 모든 기도의 전제는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본회퍼는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말씀에 연결된 기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그리고 이렇게 예수에 의해 중재되고, 말씀 자체인 예수와 연결된 기도는 기도자로 하여금 결국 신학적으로 예수가 서 있는 자리에 서게 하는데⁴⁴⁾, 그곳은 한마디로 중보자의 자

40) Albert Altenähr, *Dietrich Bonhoeffer-Lehrer des Gebets. Grundlage für eine Theologie des Gebets bei Dietrich Bonhoeffer* (Würzburg: Echter Verlag, 1976), 268-272.

41) Ernst Feil eds, *Internationale Bibliographie zu Dietrich Bonhoeff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8), 270. 여기에는 1933년부터 1996년까지 본회퍼에 관한 논문들과 책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도에 대한 주제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42)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157.

43) Ibid., 157.

44)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중보 개념을 “간접성”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Dietrich

리다. 『저항과 복종』의 언어로 하면 예수와 중재되고, 예수와의 만남은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타자를 위한 현존재”에서 드러나는 “초월경험”이며, 새로운 삶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초월적인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장소가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도달 가능한 이웃”이 된다.⁴⁵⁾ 비록 인간이 예수의 증보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예수가 증보자 자리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증보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에게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사람인 인간(제자)에게는 중요한 점이 된다. 그래서 기도자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현재 자연 가운데서 일어나는 위기들에 대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장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본회퍼가 주장하는 기도가 중재기도이기에, 예수와 연관된 기도는 인간의 실존, 역사적인 문제, 그리고 현시대에 가장 심각한 기후위기의 자연현상을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⁴⁶⁾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본회퍼가 말하는 기도의 의미를 종합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에 관해 본회퍼는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시편기도’를 사용한다. 본회퍼에 따르면, 시편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공동체를 위해 그의 공동체의 입을 통해 하는 자신의 기도서이기에, 시편기도 자체가 중재된 기도이고, 시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시편기도는 말씀에 매인기도이며, 그리고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공동체를 위해 대리하면서 하는 자신의 기도서이기에, 증보

Bonhoeffer, *Nachfolge*, 87-95;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자리(Ort)를 1933년 베를린 대학 여름학기에 행한 강의인 “그리스도론”에서 “우리의 실존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 “자연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Dietrich Bonhoeffer, *Berlin 1932-1933*, ed. Carsten Nicolaisen and Ernst-Albert Scharffenorth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306-311.

45)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558.

46) 본회퍼는 “자연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에서 성례전에서 그리스도가 자연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Dietrich Bonhoeffer, *Berlin 1932-1933*, 310.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이다.⁴⁷⁾ 이런 점들 때문에 본회퍼는 시편은 기도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학교”이고, 개인과 공동체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로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말한다.⁴⁸⁾

그럼, 이런 시편기도는 본회퍼가 처한 당시 역사, 정치적 상황에서는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시편 가운데 예수의 기도로 받아들이기 큰 어려움을 주면서 동시에 시편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보복시편(5,7,9,10,13,16,21,23,28,31,35,36,40,41,44,52,54,55,58,59, 68,69,70,71,137편 등)⁴⁹⁾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록 보복시편을 말하면서 본회퍼가 어떤 정치적인 언급이나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본회퍼 주장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편이야말로 시편의 비밀을 인식할 수 있는 장소이기에, 이 보복시편이 당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본회퍼가 처한 역사, 정치적 상황은 히틀러로 대변되는 국가사회주의가 주도하였고, 그들이 취한 여러 가지 정책으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유대인이 희생을 당하고 있었다. 그때 고백교회를 비롯한 독일교회들은 이런 정책이나 그로 인해 생긴 유대인 희생자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다.⁵⁰⁾ 본회퍼도 당국에 의해 모든 저술이나 활동들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직접적인 진술들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회퍼는 시편기도를 강조하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위협

47) Dietrich Bonhoeffer, *Gemeinsames Leben, Das Gebetbuch der Bibel*, ed. Gerhard Ludwig Müller and Albrecht Schönher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38-39.

48) Dietrich Bonhoeffer, *Gemeinsames Leben*, 40.

49) Dietrich Bonhoeffer, *Das Gebetbuch der Bibel*, 129.

50)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서는 강안일, “본회퍼와 유대인의 문제,” 『기독교사회윤리』 56(2023), 99-125.

하고,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들인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원수에 대한 심판의 집행과 의를 세워주기를 기도했다. “나는 놀라운 성취의 확신 가운데서 보복의 시편을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에게 보복을 부탁하고, 모든 그의 적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집행하도록 기도한다.”⁵¹⁾ 그러기에 여기서 의미하는 기도는 본회퍼에게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중요한 무기(Waffe)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²⁾ 이런 평가는 1938/39년 본회퍼에 의해 그로스-슐렌비츠에서 계속된 설교세미나에 참여했던 한스-베르너 쟈센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 본회퍼는 1938년 11월 국가사회주의에 의해 자행된 유대 민족에 대한 테러 행위에 즈음하여 소위 보복시편의 기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활동의 전개”를 보았다고 증언했다.⁵³⁾ 그리고 최근에 크리스토프 슈토름도 “제3제국 시대에 디트리히 본회퍼의 시편해석”이 갖는 의미를 연구 발표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본회퍼에게 시편기도는 그의 교회투쟁과 감옥에 있을 상황에서 “신학자로부터 신앙인으로 또는 동시대인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언어와 매체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본회퍼가 쓴 여러 논문들과 편지들을 제시하며 강조한다.⁵⁴⁾ 이것은 시편기도를 통해 교회 투쟁시기와 감옥생활에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에 대한 하나의 저항으로 소리를 높였고, 교회로 하여금 불의에 대해 침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신앙의 전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회퍼의 기도실천을 근거로 그의 개인적인 결정 즉, 저항을 능동적으

51) Dietrich Bonhoeffer, *Das Gebetbuch der Bibel*, 130.

52) Herbert Rainer Pelikan, *Die Frömmigkeit Dietrich Bonhoeffers* (Wien: Herder & Co., 1982), 49.

53) Hans-Werner Jensen, “Gemeinsames Leben,” in *Begegnungen mit Dietrich Bonhoeffer*, ed. Wolter-Dieter Zimmermann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4), 119-123. 특히 121.

54) Christoph Strohm, “Dietrich Bonhoeffers Psalmenauslegung in der Zeit des Dritten Reiches,” *Evangelische Theologie* 77(2017), 1-80.

로 하고, 히틀러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을 함께 실천하려는 준비를 하도록 했다는 기도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지나치다 할 수 없을 것이다.⁵⁵⁾ 이렇게 기도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자유 그 자체인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고, 이는 동시에 예수와 연결 속에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기에, 예수의 “타인을 위한 존재”와의 만남을 통한 초월경험은 기도 안에서 자유롭게 타인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⁵⁶⁾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기후정의 시대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정의와 불공평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자기방어나 자기 목적에만 몰두하여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나 기후정의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올바른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선 본회퍼가 『나를 따르라』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위한 예배는, 랍비들에게서처럼, 형제에 대한 섬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⁵⁷⁾는 주장과도 연관된다. 또한 이것은 본회퍼가 구술로 전달했다는 것을 베트게의 전달을 통해 알려진 “단지 유대인을 위해 소리친 자만이 또한 그레고리우스 송가를 부를 수 있다”⁵⁸⁾는 생각과도 연결된다. 자비네 드람은 이것을 “너는 말 못하는

55) Christiane Tjaden, *Politik im Gebet. Erträge Dietrich Bonhoeffers und Karl Barths für eine Theologie der Fürbitte für den Staat* (Münster: Litverlag, 2017), 124.

56) 본회퍼에 대한 직접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신약학자 루벤 짐머만도 바울의 자유개념을 연결과 자유라는 두 개념으로 자세하게 연구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새로운 속박이다.” Ruben Zimmermann, *Die Logik der Liebe. Die 'implizite Ethik der Paulusbrieve am Beispiel des 1. Korintherbrief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mbH, 2016), 155.

57) Dietrich Bonhoeffer, *Nachfolge*, 124(각주 88번 참고).

58) Eberhard Bethge,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in *Konsequenzen. Dietrich Bonhoeffers Kirchenverständnis heute*, ed. Ernst Feil and Ilse Tödt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195.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잠31:8)라는 말씀과의 연결을 강조하며, 당시 교회가 처한 역사-정치적인 상황에서 강제로 전혀 말하지 못하도록 강요된 사람들을 위한 공적인 발언은 기독교와 교회의 실존이며, 만약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의 자기목적과 자기방어만을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실책이라고 강조한다.⁵⁹⁾ 그런데 이런 타인을 위한 기도는 또한 하나님과 자연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본회퍼에게 하나님, 형제자매 그리고 땅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회퍼는 이런 생각을 『창조와 타락』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땅을 향한 인간의 길은 그 근원으로부터 단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길로써만 가능하다. 단지 하나님과 형제가 인간을 향하여 오는 곳에서, 인간은 땅을 향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⁶⁰⁾

2. 본회퍼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의 의미

라이어는 ‘정의를 행하는 것’과 ‘기도’를 긴밀한 연관 속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¹⁾ 이것을 위해 다섯 관점으로 나누어 본회퍼에게 기도와 행함,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지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첫 번째 관점에서 본회퍼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기도의 경험이 신학공부를 위한 선택행위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기도와 행위의 연관은 1932년 본회퍼에게 일어난 ‘판에 박힌 상투적인 것으로부

59) Sabine Dramm, *Dietrich Bonhoeffer: eine Einführung in sein Denken*, 김홍진 역, 『본회퍼를 만나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3), 291; 또한 강안일, “본회퍼와 유대인의 문제,” 99-125.

60) Dietrich Bonhoeffer, *Schöpfung und Fall*. Theologische Auslegung von Genesis 1-3, ed., Martin Rüter and Ilse Tödt(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56-63; 김현주, “디트리히 본회퍼의 관계적 신형상론 고찰-마르틴 루터의 관점과 연계하여,” 『장신논단』 56(2024), 93-121.

61) Rainer Mayer, “Beteten und Tun des Gerechten,” 211.

터 현실적인 것으로의 전환’에서 찾는다. 세 번째 연관성은 교회투쟁시기에서 찾았고, 네 번째는 세 번째보다 더 적극적으로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에 참여하는 것에서 찾았으며, 다섯 번째는 본회퍼의 시 “자유를 향한 도상의 정거장들”에서 기도와 행함의 일치가 드러났다고 주장한다.⁶²⁾

이와 같이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기도에서 중요한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에도 중요하다. 위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본회퍼가 처한 역사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의 실존이며, 본회퍼의 기도였다면 이 시점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또한 부정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시민적 용기를 갖는 것이 곧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다. 본회퍼는 이런 생각들을 『저항과 복종』의 처음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943년의 전환에 대한 해명. 10년 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피력한다. 우선 “내재적 정의” 부분에서 인간과 자연적인 피조물들이 갖는 “삶과 자기보존의 궁극적인 법칙들과 권리들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⁶³⁾ 또한 “질적 감각”에서는 양적인 (Quantitäten) 관점으로 대변되는 당시 역사적 상황들이 자신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툼으로 유대인들의 자리를 빼앗고 있었다고 한다면, 서로가 함께 보완하며 책임적으로 살아가려는 ‘질적감각’(Qualitätsgefühl)은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⁶⁴⁾ 또한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역사의 예수의 손 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의 고난을 위해 당신의 자유 가운데 몸소 고난을

62) Rainer Mayer, “Beten und Tun des Gerechten,” 210-215;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571. “행위,”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모험하며, 가능성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현실적인 것을 용감하게 붙잡는다. 생각으로 도망하지 말고, 단지 행동 안에 자유가 있다.”

63)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29-31.

64) Ibid., 31-33.

스스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비록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유자로서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며 책임적인 자세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동 없이 그저 기다리는 것과 무감각한 방관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기”⁶⁵⁾ 때문이다. 그래서 본회퍼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한 책임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다.⁶⁶⁾ 이것은 더 나아가 “연구를 위한 초안”에서 강조하는 “예수의 존재에 참여하는 가운데 주어지는 ‘타자를 위한 존재’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삶”이며, 교회가 세상적인 과업에 참여하지만, “지배하면서가 아니라 돕고 봉사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과 같다.⁶⁷⁾ 이처럼 당시 상황에서 꺾박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려는⁶⁸⁾ 본회퍼의 이런 생각들은 『저항과 복종』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창조와 타락』과 “그리스도론” 강의를 통해 신학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에⁶⁹⁾, 『윤리학』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강조한다. 그는 우선 “궁

65) Ibid., 34.

66) 구약에서 “정의와 공의”는 중요한 주제다. 특별히 예언자들에 의해 강력하게 주장된 정의와 공의는 주된 내용이 가난한 자, 과부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에 대한 불공정한 조치들에 대한 비판에서 등장한다. Konrad Schmi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Tübingen: Mohr Siebeck, 2019), 316-330;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192-196; 이한영은 구약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어떠한 규범적이며 법률적인 의무를 넘어 이웃에 대한 자비를 베푸는 의로운 정의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한영, 『구약텍스트에서 윤리까지』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345.

67) Dietrich Bonhoeffer, *Widerstand und Ergebung*, 556-561.

68)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298-301.

69) Dietrich Bonhoeffer, *Schöpfung und Fall*, 56-63. 『창조와 타락』에서 언급하는 본회퍼의 신학적 사고는 본 논문 각주 61번을 참고하라; Dietrich Bonhoeffer, *Berlin 1932-1933*, 306-311. “그리스도론”에서 본회퍼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실존의 중심, 역사의 중심, 그리고 자연의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의 한 심사자는 “하나님, 인간, 자연을 화해시키는 매개체 작용을 한다”는 해석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극적인 것과 궁극이전의 것”이라는 단편에서 이미 “형성으로서의 윤리”에 서도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궁극이전의 것에서 강조하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과 선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궁극적인 것을 위해 보존되어야 하는 것이다.⁷⁰⁾ 여기서 강조하는 인간 존재 (das Menschsein)와 선 존재(das Gutsein)는 결국 궁극적인 현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현실 속에서만 이해가 가능하기에,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며, 궁극이전의 것을 보호할 때 강조하는 인간 존재와 선 존재는 하나님의 현실성이 갖는 이런 현실에 참여함으로써만 우리는 인간다움과 선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로 들어온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은 곧 정의를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대변되는 인간 존재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당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인간다움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는 것은 곧 선에 동참하는 것이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⁷¹⁾ 그리고 특별히 정의에 대한 생각은 “자연적 생명”을 다루는 단편에서, 그동안 신학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자연적 생명’을 복음의 관점에서 새롭게 강조하며 정당한 평가를 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⁷²⁾ 그리고 본회퍼는 “각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곳에서 개인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자연적 생명 안에서 이성이

70) Dietrich Bonhoeffer, *Ethik*, 150-151.

71) Ibid., 31-61, 404. “그리스도교적인 것은 어떤 인간적인 너머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것 한가운데에 있기를 원한다.”

72) 이것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Friedrich Johannsen, “Was heißt Leben schützen?,” 62-106; 고재길, 『본회퍼, 한국교회에 말하다』 (서울: 케노시스, 2012), 148-171; Christiane Tietz ed., *Bonhoeffer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21), 272-274.

수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인식으로 간주하며, 이런 이성의 인식은 “현실성에 적절하고, 자연적인 생명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인지하게 한다”고 주장한다.⁷³⁾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무엇보다도 당시 역사-정치적 상황에서 본회퍼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⁷⁴⁾ 그것은 당시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가 인간이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침범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권리를 무시하고, 살아야 할 가치 있는 생명과 살아갈 가치가 없는 생명으로 자의적으로 나누고, 살아갈 가치 없는 생명에 대해 즉 불치의 유전병, 타고난 정신박약자 등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사회주의의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였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이는 명백한 “생명 자체의 파괴”⁷⁵⁾요 살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사회주의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위협과 침범에 대해 반대하고, 모든 생명의 권리와 가치를 주장하고,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정의를 행하는 본질적인 모습이었다.⁷⁶⁾

73) Dietrich Bonhoeffer, *Ethik*, 178; “각자에게 그의 것을”이라는 표현은 빌프리트 헤를레의 평가에 따르면, 정의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축소하며 로마의 법학자 울피아누스가 제시한 것으로, “정의의 다양한 의미, 측면 그리고 관련성을 고려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서로 연결하고 또한 정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하나의 개념으로 요약해 다룰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고전적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Wilfried Härle, 『선의 매혹적인 힘』, 422.

74) Dietrich Bonhoeffer, *Ethik*, 179-191.

75) *Ibid.*, 189.

76) 후버는 “인간존엄과 인간권리”를 다루는 부분에서 하나의 예로 본회퍼의 사고를 논의한다. 본회퍼의 인권에 대한 생각은 당시 신학적 독일 신학자들과 다르게 유럽적인 사고와 미국적인 사고가 함께 작동하고 있었으며, 그가 가진 현실이해를 바탕으로 ‘자연적 삶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그런 후에, 결론적으로 본회퍼가 가진 인권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요약한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은 이성 본성에 연관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영적인 실존의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신체적 삶의 권리는 영적인 삶의 권리와 동일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로 “자연적인 삶의 권리는 자유의 권리”라고 주장하며, 자유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삶을 말하며, 이는 본회퍼의 자유이해는 “소통적 자유”(kommunikativen Freiheit)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Wolfgang Huber, *Gerechtigkeit und Recht*. 298-301.

그럼, 기후정의 시대에 본회퍼가 이해하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로빈슨이 주장한 것처럼, 기후정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와 결합하여 소외된 사람이나 계층, 또는 미래세대에 대한 인권을 먼저 생각함으로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연관된다.⁷⁷⁾ 본회퍼가 처한 역사-정치적 상황에서 강조했던 인권은 오랜 역사적 투쟁의 결과로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다. 그 이후, 이미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강조되고 존중되어 왔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보다 위험한 기후위기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인권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효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현재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한 “기후변화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식이 “구조적 인권침해의 궁극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⁷⁸⁾ 그는 기후위기가 진행되는 동안 “빈곤국 집중 지역은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빠르게 전락하게 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한 기근, 사회적 기능 붕괴, 난민, 이주 등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⁷⁹⁾ 또한 이런 현상은 한나라 안에서조차 사회적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의

77) 조영호는 기후정의의 문제는 “누가-문제”와 “어떻게-문제”로 집약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기든스는 ‘누구의 문제를,’ 피터 싱어는 “어떻게의 문제인 분배 방식”(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집중한다고 주장한다. 조영호, “기후 위기와 기독교윤리,” 고재백, 유미호, 조영호 편집,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206-234. 특히 218-219.

78) 조효제,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서울: 후마니타스, 2017), 109-111.

79) 조용훈은 특별히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난민” 문제를 강조하면서, 이 문제가 세계화시대에 새로운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환경난민 문제를 국가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환경안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환경적 정의를 통해 세계평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다. 조용훈, “환경정의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유석성 외, 『사회정의론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375-403; 조용훈, 『지구화 시대의 기독교』

최대 피해자가 되는 “기후변화에 의한 구조적 인권 침해의 계층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⁸⁰⁾ 이런 계층화를 통한 사회적 현상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야기하여, 건강을 비롯한 기아, 영양실조, 기근, 교육, 문맹률 등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⁸¹⁾ 그러기에 기후변화로 더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본회퍼가 하나님, 인간, 자연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한 인권의 개념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인류 공통의 문제인 기후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도록 안내할 것이다. 그리고 본회퍼의 생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세상과 분리된 교회 이해를 넘어 하나님과 세계를 하나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러기에 현재 당면한 환경적 현실을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임을 강조한다. 또한, 기후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질적감각과 책임적인 연대가 절실함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나 저개발국가라는 정치나 힘의 논리가 아니라 각 나라와 개인들이 본회퍼의 의견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리를 인정받고, 평등한 자격으로 전지구적 문제를 함께 공동결정(Mitbestimmung)하는 “지구적 연대”⁸²⁾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31-77.

80) 조효제, 『인권의 지평』, 111.

81)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Anthony Giddens and Philip W. Sutton, *Sociology*, 8th, 김미숙 외 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18), 602-653.

82) Grace Ji-Sun Kim, Hilda P. Koster ed., *Planetary Solidarity. Global Women's Voice on Christian Doctrine and Climate Justice* (Minnesota: Fortress Press Minneapolis, 2017); Marion Grau, “Theologische Beiträge zu Klimakrise und globaler Klimagerechtigkeit,” *Verkündigung und Forschung* 66(2021), 153-158.

IV. 결론

지금까지 본회퍼에게 있어 기도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기후정의 시대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회퍼 윤리가 갖는 현재성과 현장성에 입각하여, 기후위기 문제가 초래하는 세대 간의 부정의와 분배적 불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고, 세계 기후정책에서 핵심적인 원칙으로 간주한 “기후정의”라는 상황에서 본회퍼가 말하는 “기도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가 드러났다.

이제, 본회퍼의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기후정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먼저,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서 부정의와 불공평이 지배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후정의를 위해 교회가 자기만족이나 자기 목적에만 매몰되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에 더 이상 둔감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소리를 높이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⁸³⁾ 행동하며 그 행동이 더 정의로운 전환으로 이루어지도록 정의로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며 교회로 하여금 세계와 동떨어져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지구촌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책임감 있게 환대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실존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 “역사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 “자연의 중심으로서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의 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될 때 교회로 하여금 그동안 교회 안에서만 매몰 되어 일명 ‘영적인 것’에만 집중하는 시각에서, 그

83) 라이너 마이어는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갖는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기도 없는 행위는 행위자들로 하여금 자기 정당화로 귀결되게 하고, 자기 힘의 이데올로기에 빠지게 한다. 책임적인 행위가 없는 기도는 세상 도피, 하나님에 대한 순종 거부를 의미한다.” Rainer Mayer, “Beten und Tun des Gerechten,” 215.

리스도, 교회, 세계의 현실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기도는 가장 영적인 활동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렇게 간주된 기도가 본회퍼에게서는 교회를 넘어 역사로, 더 나아가 지구환경을 포함한 자연환경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정의를 추구하며, 특별히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논의 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논의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본회퍼에게서는 인권이 하나님, 인간, 자연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논의되고 있기에 더욱 특별하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는 것 없이 통합적인 관계성 속에서 인권을 다루기에 단순히 인간 중심주의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세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인권에 대해 관심 있는 몇몇 활동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시대의 아픔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본회퍼의 '기도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다.

참고문헌

- 강안일. 『본회파에게 신앙을 배우다』. 서울: 토비아, 2018.
- _____. “본회파와 유대인의 문제.” 『기독교사회윤리』 56(2023), 99-125.
- 고재길. 『본회파, 한국교회에 말하다』. 서울: 케노시스, 2012.
- 김은화. “정의로운 전환.” 『국토』 496(2023), 43-45.
- 김현수. “디트리히 본회파의 『나를 따르라』에 대한 하나의 공적인 읽기.” 『신학사상』 160(2013), 199-236.
- 김현주. “디트리히 본회파의 관계적 신형상론 고찰-마르틴 루터의 관점과 연계하여.” 『장신논단』 56(2024), 93-121.
- 박시원. “기후위기 적응 정책과 기후정의의 문제.” 『환경법연구』 43(2021), 39-81.
- 이동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학채플의 실천 프로그램 제안.” 『대학과 선교』 57(2023), 67-95.
- 이한영 『구약텍스트에서 윤리까지』.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 주병기. 『정의로운 전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전환』. 서울: 울곡, 2022.
- 조영호. “기후 위기와 기독교윤리.” 고재백, 유미호, 조영호 편집, 『기후 위기 시대의 도전과 교회의 응답』.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2, 206-234.
- 조용훈. “환경정의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이해.” 유석성 외, 『사회정의론 연구』.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출판부, 2016, 375-403.
- _____. 『지구화 시대의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조효제.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서울: 후마니타스, 2017.
- 최명애. “인간 너머의 기후정의.” 『대한지리학회지』 58(2023), 452-468.
- 한상운 외.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I)』. 세종: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2019.
- 한재각. 『기후정의』. 대구: 한티재, 2021.
- Altenähr, Albert. *Dietrich Bonhoeffer-Lehrer des Gebets. Grundlage für eine Theologie des Gebets bei Dietrich Bonhoeffer*. Würzburg: Echter Verlag, 1976.
- Aristoteles. *Ethica Nicomachea*. 이창우 외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이제이북스, 2007.

- Bethge, Eberhard. "Dietrich Bonhoeffer und Juden," in *Konsequenzen. Dietrich Bonhoeffers Kirchenverständnis heute*. ed. Ernst Feil and Ilse Tödt.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80.
- Bonhoeffer, Dietrich. *Sanctorum Communio. Eine Dogmatische Untersuchung zur Soziologie der Kirche*. ed. Joachim von Soost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Akt und Sein. Transzendentalphilosophie und Ontologie in der systematischen Theologie*. ed. Hans-Richard Reut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Schöpfung und Fall*. Theologische Auslegung von Genesis 1-3. ed. Martin Rüter and Ilse Töd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Nachfolge*. ed. Martin Kuske and Ilse Töd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Gemeinsames Leben, Das Gebetbuch der Bibel*. ed. Gerhard Ludwig Müller and Albrecht Schönher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Ethik*. ed. Ilse Tödt, Heinz Eduard Tödt, Ernst Feil and Clifford Green.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Widerstand und Ergebung. Briefe und Aufzeichnungen aus der Haft*. ed. Christian Gremmels, Eberhard Bethge and Renate Bethge in Zusammenarbeit mit Ilse Töd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Berlin 1932-1933*. ed. Carsten Nicolaisen and Ernst-Albert Scharffenorth.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_____. *London 1933-1935*. ed. Hans Goedeking, Martin Heimbucher and Hans-Walter Schleich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 Burkholder, Benjamin J. "Christological Foundations for an Ecological Ethic: Learning from Bonhoeffer."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6. Cambridge 2013, 338-356.
- Dramm, Sabine. *Dietrich Bonhoffer: eine Einführung in sein Denken*. 김홍진 역. 『분회퍼를 만나다』. 서울: 대한기독교사회, 2013.
- Feil, Ernst eds. *Internationale Bibliographie zu Dietrich Bonhoeff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1998.

- Giddens, Anthony and Sutton, Philip W. *Sociology*. 8th. 김미숙 외 역.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18.
- Grau, Marion. “Theologische Beiträge zu Klimakrise und globaler Klimagerechtigkeit.” *Verkündigung und Forschung* 66(2021), 153-158.
- Härle, Wilfried. *Ethik*. 김형민 역. 『신의 매혹적인 힘. 그리스도교 윤리학의 이론과 실제』. 성남: 북코리아, 2016.
- Heuvel, Steven C. van den. *Bonhoeffer's Christocentric Theology and Fundamental Debates in Environmental Ethics*. Oregon: Pickwick Publications, 2017.
- Huber, Wolfgang. *Gerechtigkeit und Recht. Grundlinien christlicher Rechtsethik*.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06.
- Jähnichen, Traugott. *Vom Industrieuntertan zum Industriebürger. Der soziale Protestantismus und die Entwicklung der Mitbestimmung(1848-1955)*. Bochum: SWI-Verlag, 1993.
- _____. “Gerechtigkeit.” In *Evangelische Ethik Kompakt. Basiswissen in Grundbegriffen*. ed. Reiner Anselm and Ulrich H. J. Körtner.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2015, 63-71.
- Jensen, Hans-Werner. “Gemeinsames Leben.” in *Begegnungen mit Dietrich Bonhoeffer*. ed. Wolter-Dieter Zimmermann. München: Chr. Kaiser Verlag, 1964, 119-123.
- Johannsen, Friedrich. “Was heißt Leben schützen?.” In *Dietrich Bonhoeffers Ethik. Ein Arbeitsbuch für Schule, Gemeinde und Studium*. ed. Reinhold Mokrosch, Friedrich Johannsen and Christian Gremmels. Gütersloh: Chr. Kaiser, 2003.
- Kim, Grace Ji-Sun and Koster, Hilda P. ed. *Planetary Solidarity. Global Women's Voice on Christian Doctrine and Climate Justice*. Minnesota: Fortress Press Minneapolis, 2017.
- Kraus, Hans-Joachim. *Theologische Religionskriti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82.
- Mayer, Rainer. “Beten und Tun des Gerechten.” in *Dietrich Bonhoeffer aktuell. Biografie, Theologie, Spiritualität*. ed. Rainer Mayer and Peter Zimmerling. Gießen: Brunnen Verlag, 2001.

- Metaxas, Eric, *Dietrich Bonhoeffer*. 김순혁 역. 『디트리히 본회퍼』. 서울: 포이에마, 2011.
- Pelikan, Herbert Rainer. *Die Frömmigkeit Dietrich Bonhoeffers*. Wien: Herder & Co., 1982.
- Rasmussen, Larry L. "Bonhoeffer: Ecological Theologian," in *Bonhoeffer and Interpretive Theory: Essays on Methods and Understanding. International Bonhoeffer Interpretations(IBM)* 6. Edited by Peter Frick. Frankfurt am Main: Lit Verlag, 2014. 251-268.
- Rayson, Dianne P. *Bonhoeffer and Climate Change. Theology and Ethics for the Anthropocene*. London: Fortress Academic, 2021.
- _____. "Bonhoeffer's Christology in a Warming World: Eco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Feminist Theology." *Sea Changes: The Journal of Women Scholars of Religion and Theology* 7. University of Queensland 2016. 1-28.
- _____. "Earthly Christianity: Bonhoeffer's contribution to ecotheology and ecoethics." *The Bonhoeffer Legacy: An International Journal* 6/1(2019).
- Robinson, Mary. *Climate Justice*. 서민아 역. 『기후정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희망, 회복력 그리고 투쟁』. 서울: 필로소픽, 2020.
- Schlosberg, D and Collins, L. B. "From environmental to climate justice: climate change and the discourse of environmental justice."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limate Change*. 5(3), 2014, 359-374.
- Schmid, Konrad.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Tübingen: Mohr Siebeck, 2019.
- Schönherr, Albrecht. "Unser Christen wird heute nur in zweierlei bestehen: Im Beten und im Tun des Gerechten unter den Menschen." *Versuch einer Auslegung, in Horizont und Mitte. Aufsätze, Vorträge und Reden*. ed. Albrecht Schönherr. Berlin: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81, 104-118.
- Strohm, Christoph. "Dietrich Bonhoeffers Psalmenauslegung in der Zeit des Dritten Reiches." *Evangelische Theologie* 77(2017), 1-80.
- Tietz, Christiane ed., *Bonhoeffer Handbuch*. Tübingen: Mohr Siebeck, 2021.
- Tietz-Steiding, Christiane. "Gott ist uns immer gerade heute Gott," in *Bonhoeffer-Rundbrief* Nr. 70/2003, 8-21.

Tjaden, Christiane. *Politik im Gebet. Erträge Dietrich Bonhoeffers und Karl Barths für eine Theologie der Fürbitte für den Staat*. Münster: Litverlag, 2017.

Wick, Stefan. *Sucht den Herrn und ihr werdet leben! Gottsuche in Dietrich Bonhoeffers Schrift “Gemeinsames Leben und der Benediktsregel. Eine vergleichende Studie*. Münster: Litverlag, 2006.

Zimmermann, Ruben. *Die Logik der Liebe. Die ‘implizite Ethik der Paulusbriefe am Beispiel des 1. Korintherbrief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sgesellschaft mbH, 2016.

환경부 홈페이지 참조(2024.4.10.) <https://www.me.go.kr/home/web/main.do>.

논문투고일: 2024년 10월 12일

심사개시일: 2024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18일

• 국 문 초 록 •

이 논문은 ‘기후정의’ 이슈가 대두된 현 상황에서 본회퍼 윤리가 갖는 현재성과 현장성을 출발점으로 하여, 본회퍼가 말하는 “기도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기후정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에 어떤 의의가 있는지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먼저,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교회가 부정의와 불공평이 지배하는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기후정의를 위해 자기만족이나 자기 목적에만 매몰되어,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픔들에 더 이상 둔감하거나 침묵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기후정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문제를 인권 문제와 결부하여 소외된 사람과 계층, 또는 미래세대의 인권을 먼저 생각함으로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주제어: 디트리히 본회퍼, 기후정의, 기도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인권, 한국교회
